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Tuesday 21 May 2002 (afternoon)

Mardi 21 mai 2002 (après-midi)

Martes 21 de mayo de 2002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1(b) 거룩한 본능

어느 해 봄, 이 마을에 뜻밖의 황새 한 쌍이 날아 들어왔다. 꿩이나 산비둘기가 아니면 부엉이나
 매 같은 산새들만 보아 온 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 황새가 신기했다. 희고 큰 날개를 여유
 있게 훨훨 흔들며 노송(老松)의 위를 짝을 지어 유유히 날아 다니는 품이 정말 대견스럽다. 붉은
 주둥이와 긴목, 새하얀 털로 덮인 날개 밑으로 쪽 뻗어 내린 검붉은 두다리, 황새의 자태는 과연
 5 군자의 모습이었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빗물처럼 쏟아지는 늦은 봄의 오후, 마을 사람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황새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이들은 그 황새가 길조(吉鳥)라고 믿고, 무엇인가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금년엔 찾길이 뚫리겠지, 올해는 꼭 전기가 들어오겠지 하고.
 그런데 변이 생겼다. 낙엽이 질 무렵의 어느 날 아침, 이 마을을 지나가던 밀렵꾼이 그 황새를
 보고 총(銃)을 쏜 것이다. 총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아침을 먹다 말고 황새 등지가 있는 노송
 10 숲으로 뛰어 모였다. 밀렵꾼은 도망을 가고, 황새 한 마리가 선지피를 흘리며 마른 억새풀 위에
 쓰러져 있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디로 날아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그 며칠 뒤였다. 밤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지창(紙窓)에 갈잎이 날려와 부딪혔다. 그런데 조금은
 귀에 익은 황새의 울음소리. 탁탁탁 타르르 탁탁. 사랑방에 모여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15 도리는 듯한 이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말없이 마당으로 나왔다. 가을 밤, 밤 하늘에
 찬란한 별들, 그 별빛에 흰 깃을 번쩍이며 황새 한 마리가 물레방앗간 주위를 이리저리 에타게
 날고 있지 않은가. 총 소리에 놀라 도망갔던 황새가 돌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황새는 인제 인간이 두려워서, 쓰러져 누워 있는 자기의 짝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가슴이 몽클해진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피해 주려고 저마다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다.
 20 그래도 황새는 연신 부리가 멎들어 부서지도록 울어댔다. 탁탁탁 타르르 탁탁 그날 밤엔 늦도록
 화전민 후예들의 지붕 밑에 호롱불이 꺼지질 않았다.

며칠 뒤, 무서리가 몹시 내린 어느 날 아침, 기이(奇異)하고 처참한 변이 또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알뜰히 보살펴온 그 한 쌍의 황새가 서로 목을 감고 싸늘하게 죽어 있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은 이 슬픈 광경을 보자 숙연해졌다. 그리고 저마다 무엇을 느꼈음인지
 25 착잡한 심정으로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황새도 영물(靈物)일까? 산골의 날씨는 무섭게
 추워지는데, 짝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었던 애절한 황새의 정, 조류(鳥類)에 따라서는 암수의
 애정(愛情)이 별스러운 놈도 있지만, 그것이 모두 그들의 생태요, 본능(本能)이라 했다. 그러나
 하찮은 그 본능이 오늘 따라 인간의 종교보다 더 거룩하고 예술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김규련, ‘ 거룩한 본능 ’)